



여좌주보

연중 제 24 주일
2022. 9. 11. 제1303호

성모승천 대축일을 보내고...

성가대원 정복순(아네스)

내가 알고 지내는 타 본당 자매 중
에 15년 전 성모승천 대축일에 남편
을 보낸 분이 있다. 해마다 그 날이
되면 그 가족(자매님과 딸 둘)들은 대
축일겸 기일 미사로 참례하고 있다.

만나면 늘 자랑스럽게 얘기도 들려
준다. 우리 남편 루피노는 성모님 승
천 하실 때 옷자락 꼭 잡고 하늘로 같
이 올라갔노라고, 천국에 가서 아마
내 자리도 마련해 놓았을 거라고...

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도
이 세상 소풍 끝나고 떠날 때에 어떤
모습으로 갈지 잠시 꿈을 꾸었다.

이제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는
일상이 되었고 언제나 기도 끝에는
‘오늘 하루도 잘살자.’

내게 주어진 하루가 내 것이 아닌 하
느님이 주신 하루다.’ 되 녀이며 나를
위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요. 그런 기

도는 들은 체도 앓는 주님이라는 것도
이제 신앙짬밥으로 알게 됐다. ㅎㅎ

지난주일 강론 때 신부님께서 하신
말씀이 가슴에 콕 박혀 들어왔다. 기
도는 하느님과 영원히 할 수 있도록
지향을 두고 하라는...

영세 후 처음으로 묵주기도를 배울
때 나의 첫 지향은 내가 가지게 된 이
신앙이 뿌리 내리기를, 변하지 않기를
기도했었다.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내
생활의 첫째로 두기를 실천하려고 지
금도 노력중이다.

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은 손에 쥔
묵주를 고리삼아 성모님 옷자락에 필
사적으로 매달려 사는 것이다. 그런
삶이 쌓이다보면 측은지심이 지나친
어머님이 내 손을 살포시 잡아주시지
않으실까?

꿈꿔본다 오늘도!!! 

주일전례

제 1독서 탈출 32.7-11.13-14

화 답 송 ◎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.

제 2독서 1티모 1,12-17

복 음 루카 15,1-32 또는 15,1-10

연중 제 24 주일 화답송 【다해】

시편 51(50), 3-4. 12-13. 17과 19



천주교 마산교구 여좌동 성당
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
<http://yeo.cathms.kr>

5168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89번길 9
사무실 (055)545-3313 mj3hc@cathms.or.kr
사제관 545-3311 수녀원 545-3312